

무안군, 기후위기 대응·안전 인프라 발판 마련

하수도정비 공모 선정 492억 확보
상습 침수 성남리 일대 대대적 개선
노후 하수관로 정비·배수펌프장 신설

무안군이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안전 인프라 혁신을 위한 중대한 발판을 마련했다. 2일 무안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492억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국 39개 지자체 중 최종 15곳에 이름을 올린 이번 성과는 상습 침수로 고통받던 무안을 성남리 일대의 도시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안을 성남리는 무안군북합문화센터와 보건소, 상가 및 주거단지가 밀집된 대표적인 저지대 지역으로 고질적인 하수관로 용량 부족과 지형적 한계로 인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반복돼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해왔다. 특히 지난 8월 3일 시간당 113.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건물 79개소가 침수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고조된 바 있다. 이에 무안군은 즉각적인 피해 원인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착수, 8월 중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치열했던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39개 지자체가 경쟁했으며 서울에서 진행된 비공개 사업 발표와 환경부, 환경공단, 환경전문가의 심층 심사를 거쳐 무안군이 최종 선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군은 치밀하게 수립된 계획과 현장 기반의 실증 자료 제출을 통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

가를 받았다. 이번 대규모 예산 확보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장선영 팀장은 "공모사업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며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선진 배수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확보된 사업비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배수펌프장 신설, 우수 유입 개선 등 종합적인 침수 대응 인프라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중점관리지역 지정으로 추진되는 침수예방사업을 지난해 선정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 무안을 일대의 침수 피해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무안읍뿐 아니라 군 전역의 환경기초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기후변화에 강한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미래 100년 도약 '그린웨이브 영암' 선포

郡, '제50회 군민의 날 기념식' 성료
순환경제·기본행복사회 등 5대 목표

50돌을 맞은 영암군민의 날을 기념해 영암군민이 미래 100년의 도약을 향한 희망을 함께 선포했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제50회 영암군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미래 비전 '그린웨이브 영암'을 발표했다. 이번 기념식은 군민 모두가 주인공이 돼 미래 희망을 공유하는 자리로, ▲순환경제 미래 영암 ▲ESC(Eco·Sports·Culture) 관광거점 ▲농산업 디지털 전환 ▲미래지향적 정주환경 ▲영암형 기본행복사회 등 5대 목표를 담은 비전이 선포됐다. 또한 앞으로의 군정 방향에 군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녹서 전달식'도 진행됐다. 비전 선포식에 앞서 고향사랑기부금, 인제육성기금, 천사펀드 기탁식이 열려 지역 발전을 위한 나눔이 이어졌다.



제50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에서 영암축협 등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영암군 제공>

이어 영암을 전국에 알릴 영암군 홍보대사로 유투버 이태운, 셰프 천상현, 가수 현진우, 방송인 강성범이 위촉됐다. 시상식에서는 프로골퍼 유해란이 지역 발전과 군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영암군민의상'을 수상했다. 또한 '자랑스러운 월출인의상'은 류진 우건설 대표이사, 김성범 재경영암군향우산악회장, 이광준 대한회계법인 대표, 신안숙 재경영암군향우회 기획국장, 김만홍 재경영암군향

우회 부회장이 받았다. 이 밖에도 김준근 재경향우회원로회 의장이 감사패, 안석심 영암군새마을부녀회장이 공로패, 도포면 강명완씨와 미암면 김막내씨가 효행상을 각각 수상했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5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발판 삼아 향후 100년 영암을 에너지 전환 중심도시, 기본사회 선도도시, 사람과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인문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해남군은 지난날 28일 해남군수협 대회의실에서 라오스 공공형 계절근로자 환영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 공공지원 첫 시행

여가에 일당제 근로자 파견
해남군은 2일 "전국 최초로 어업분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사업은 기존 개별 여가와 외국인근로자간 근로계약 후 5-8개월 동안 해당 여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에서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협에서 일손이 필요한 여가에 일당제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무·안전교육을 거쳐 이달 3일부터 여가 투입을 시작해 내년 4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3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사업 시행은 해남군수협에서 추진하

게 된다. 앞서 군은 라오스 계절근로자 38명의 입국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역에 취업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해남군 관계자는 "어업분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첫 시행이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촌인력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며 "해남군수협과 긴밀히 협의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목포 청소년 국악오케스트라, 경주서 공연

목포의 청소년들이 국악의 선율로 경주에서 영호남 화합의 무대를 선보였다. 2일 목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경주교육지원청의 초청으로 진행됐으며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가 운영하는 '목포 청소년 국악오케스트라 바다청빛소리'가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사진> 이번 공연은 영호남 청소년 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우정을 넓히고 전통예술을 매개로 지역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목포 청소년 국악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국악의 선율로 지역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고 청소년들이 국악을 통해 표현한 정체성과 열정, 그리고 지역을 넘어 함

께 성장하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보여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민재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센터장은 "이번 경주 공연은 청소년들이 국악으로 세상을 배우고 지역과 세대를 잇는 교류의 힘과

예술의 가치를 직접 느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양형욱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두 교육지원청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으로 서로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함평군 농가 온·오프라인 판매 전략 '호평'

농업인 판매기술 지원사업 추진
민간기업 협업 청년·고령농 지원

함평군이 지역 농가의 자립형 유통 기반 강화에 성과를 거두며 농산물 판매와 홍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 및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 '지역 핵심 유통 농업인 판매기술 확산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오프라인을 결합한 맞춤형 판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 군은 지난 8월부터 BK시들리스포드 청년농부와 토종 다래 고령 농가를 중심으로 시범지역을 진행하며 온라인 홍보·라이브커머스·SNS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약 2천200만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핵심 유통 농업인(농가 인플루언서)을 중심으로 '함담 로컬컬리에이터 홍보단'과 '담클 블로그 동아리' 회원에게 홍보·판매 노하우를 전수하며 지역 농가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높이고 특화 품목의 인지도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군은 농업회사법인 '해름'과 협력해 지난달 25-26일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현장에서 대규모 홍보·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현장에서는 함평의 대표 농수특산물을 전시·판매하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온라인에서는 해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라이브커머스 방송과 무료배송 이벤트로 고객 유입을 극대화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강진군 '쌀귀리 연고산업 육성' 박차

전남TP·바이오진흥원 협력
54억 투입 25개 기업 지원

강진군이 지역 대표 자원인 쌀귀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섰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전남테크노파크(TP)와 전남바이오진흥원이 협력하는 '지방소멸 대응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 25개사에 총 54억원 규모(38개 과제)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행정·기술·산업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기업 맞춤형 전 주기 지원체계 마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강진군은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성과도 가시적이다. 호평농원은 사업 지원을 통해 할랄인증을 획득, 중동 수출의 길을 열었고 <서남도농산과 믿음영농조합법인인 베트남 하노이·호치민에서 열린 '2025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해 7건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또한 8개 기업이 추가 연계사업으로 17억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도·시제품 제작·수출판로 개척·전문인력 양성 등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산업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대표 사례이자 강진군의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지역의 전통과 첨단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광군 장애인 취·창업 교육지원센터 개관

일자리·교육 기회 제공

영광군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으로 내걸었던 장애인 취·창업 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복지타운 광장에서 장세일 군수와 도·군의원, 장애인단체장 및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 장애인 취·창업 교육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개관하는 교육장은 장애인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대강당, 컴퓨터실을 포함한 프로그램실 5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교육 인원에 맞게 규모별 프로그램실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4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기본소득 영광의 비전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장애인의 행보를 응원하고, 새롭게 단장된 이곳이 모두의 희망이 되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